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1. / (총 11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성 창 현	전 화	044-202-3410
담 당 자	정 용 수		044-202-3423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천병희씨 등 22명 입양유공자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1일(월) 「제1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6명(훈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6명 등 입양 유공자 22명에 대해 포상한다.

○ 이번 입양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 기념행사로 추진한다.

- 이에 따라 포상 수여식은 생략하고, 포상자 추천기관별로 포상 수여 및 부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기념행사) 입양주간(5.11~17.) 기간 중 아동 관련 기념일(어린이 날, 입양의 날, 가정위탁의 날, 실종아동의 날) 통합 누리집(dayforchild.ncrc.or.kr)을 개설하여, 공모전(입양 슬로건, 우리가족 그림그리기) 수상작 전시, 축하 영상(보건복지부장관),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 5명의 자녀(3남 2녀)를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공개입양 홍보를 위해 꾸준히 활동한 천병희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지난 37년간 입양업무 수행을 통해 아동복지에 헌신한 김혜경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195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으로 국제 입양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 수잔 순금 콕스씨(홀트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3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2019년 한 해 동안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2018년(681명) 대비 23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입양 387명, 국외입양 317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국내 9명, 국외 14명이 늘어났다.

- 미숙아, 저체중아 등 건강 이상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은 51명으로 지난 해(23명) 보다 28명(221% ↑) 늘어난(국내입양 차지비율 6.1%→13.2%) 반면, 국외입양은 112명으로 지난해(135명) 보다 23명(17.1% ↓) 줄어든(국외 입양 차지비율 44.5%→35.3%)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양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아쉽고, 이번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정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붙임 > 1. 「제15회 입양의 날」 온라인 기념 행사 개요
2. 입양 유공 포상자 명단
3. 2019년 입양 통계

붙임 1 「제15회 입양의 날」 온라인 기념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 (내용)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와 입양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실시
 -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수여식은 열지 않고, 추천기관을 통해 상장 및 부상품 전달 예정
- (일자) '20. 5. 11.(월) ~ 5. 17.(일)

□ 세부 내용

- 홈페이지(dayforchild.ncrc.or.kr) 개설(5월 아동 관련 기념일 통합)
 - 공모전 수상작, 유공 포상자, 축하 영상, 온라인 이벤트 등 게재
-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포상자 소개) 입양의 날 기념 유공 포상자 명단 및 수상소감 등 게재
 - (동영상 게재) 입양의 날 기념 축하영상* 및 입양인식개선 영상 등
 - *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배우 신애라 및 이아현(홍보대사) 등
 - (특별 이벤트) 착한 손글씨 캠페인, 도전 입양OX 퀴즈, 미션 포토제닉
 - (수상작 전시) 입양 슬로건 및 우리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공모전 수상작
 - (참여 활동) 집에서 입양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입체퍼즐 등 키트 발송

□ 온라인 주간행사 포스터

입양의날(5.11) | 입양주간(5.11~5.17)

제15회 입양의 날 기념 온라인 주간행사

입양,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020. **5. 11.**(월) ~ **5. 17.**(일)

온라인 주간행사


입양이란


슬로건 공모전


그림 공모전


유공자 포상


축하메시지


특별이벤트

주간 특별이벤트


착한 손편지
캠페인


도전!
입양OX퀴즈


가족과 함께
미션 포토제닉

※ 온라인 캠페인 참여시 다양한 이벤트 및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입양의 날]을
클릭하세요!

dayforchild.ncrc.or.kr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권리보장원

협력  한국입양옹호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


붙임 2 입양 유공 포상자 명단

□ 정부포상 수상자(6명)

* 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4명

훈격	성명(소속·직위)	주요공적
국민 훈장 동백장	 천병희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부모로서 입양가족 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의 자녀(3남 2녀)를 입양한 입양 부모로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의 입양가족 자조모임인 서울강서지역 대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은 경기도 안성·평택지역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역의 입양가족 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함 ■ 건전한 입양가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안성·평택지역 대표를 맡은 4년간 지역모임을 월 1회(4년간 50회) 이상 꾸준히 운영하여 입양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 1회(2년간 40회) 이상 청소년기의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3개 또래모임을 진행하여 입양자녀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음 ■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공개입양 홍보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뿌듯한 소신으로 예비입양가족들의 입양상담 및 진행을 돕는 등 입양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명의 자녀들은 현재 각자 다른 악기를 배우고 다루면서 현악앙상블을 만들어 초청공연과 가족들의 방송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개입양을 홍보하는 일들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 * SBS 내마음의 크레파스('11) 및 CBS 새롭게 하소서('13) 출연, 대한사회복지회 예비입양부모교육 사례발표 강연('19), 가족 오케스트라 활동('19)
대통령 표창	 김혜경 (동방사회복지회 입양사업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업무 수행을 통한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3월 동방사회복지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7년간 4만3천여명에 이르는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지침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음 ■ 국내·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주기 위한 모국방문 프로그램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입양인이 정착성을 찾도록 지원하였고, 전국 6개 지부를 중심으로 입양부모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공개입양을 한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국내입양부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음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절차 및 자녀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여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도왔으며, 입양기관 위탁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위탁모와 아동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음. 또한, 후원자 개발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온 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훈격	성명(소속·직위)	주요공적
국무 총리 표창	 권지성 (침례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족으로서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시기에 입양이 가족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2007년에 둘째 아들을 입양 후 2013년에는 셋째 딸을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건전 입양문화 확산에 공헌 ■ 입양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에 「공개입양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도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중단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14년간 연구를 수행하는 등 16년간 입양관련 35편의 논문 등재로 입양관련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 ■ 입양인식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 입양기관과의 입양부모교육(매년 12회이상), 가족캠프, 자조모임, 입양간담회, 세미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입양부모와 아동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입양관련 도서 저술 및 번역을 통해 일반대중들에게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함.
국무 총리 표창	 박경민 (계명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 등 사후서비스 지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5월부터 미국,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국외입양인들의 가족찾기와 통번역, 한국을 방문한 국외 입양인들의 문화체험 및 숙식제공, 심리정서 지원 등 사후 서비스 제공에 헌신적인 봉사를 수행해왔으며, 국외입양인 15명을 도와 6명의 가족 상봉 성과를 이끌어냈었고 상봉 후 국외입양인과 가족 간의 갈등과 문화차이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정서적지지 등 사후서비스 지원에 기여함. ■ 아동 안전·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학교안전저서”, “성교육교재 개발” 및 “초등학생 성폭력 예방 앱개발”로 아동의 지역사회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교육청 초,중,고등 보건교과 인정도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음. ■ 국민 안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8개월의 임상간호사, 포철공고 보건교사 8년 기간 중 기숙사 생활 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학교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간호대학 교수 31년 11개월간 후진양성, 보건복지부 맞춤형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영남지역간사로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정착에 기여함
국무 총리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인으로서 국제 입양인 커뮤니티 형성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후 국제 입양과 아동 복지를 위해 35년 이상 헌신한 아동복지와 입양계의 국제적 전문가로서 1999년 400명 이상의 유럽 및 미국 한국 입양인이 집결한 “한국 입양인들의 국제모임”을 창립하였고, 2004년 한국 입양인들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세계 한국 입양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음. ■ 국제입양 및 아동복지 관련 교육 활동 및 인식개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 방안 모색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기관 대표들에게 입양 관련

훈격	성명(소속·직위)	주요공적
	수잔 순금 콕스 (홀트인터내셔널 부회장)	<p>교육을 진행했으며, 유니세프와 함께 루마니아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아동 복지에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방안을 교육하였으며,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였음.</p> <p>▪ 미국 입양인법안 통과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의회의 입양 연합체와 미국 국무부 소속 해외 교민 지원 부서를 대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악관에서 진행된 입양과 아동 복지에 대한 공공 정책 브리핑에도 다수 참석한 이력을 토대로 2000년 미국으로 입양되는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이 제공되는 법안의 통과에 기여하였음
국무 총리 표창	 <p>홍숙희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p>	<p>▪ 입양대상아동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로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발달지연, 소두증, 심장병, 정신병력이 있는 아동 및 방임아동 등의 의료적 취약아동을 포함 총 56명의 요보호아동을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기까지 건강하게 양육하였음

붙임 3 2019년 입양 통계

1. 연도별 입양현황

○ '19년까지 총 248,728명 입양

- '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07년 이후부터 국내입양 증가 추세 지속

(단위 : 명)

구분	계	2009년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48,728	235,630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국내	80,864 (32.5%)	72,947 (31.0%)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국외	167,864 (67.5%)	162,683 (69.0%)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 연도말 신청건의 다음연도 이월 허가에 따라 신청과 허가인원 차이 발생

(단위 :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7	885	863	474 (53.6%)	465 (53.9%)	411 (46.4%)	398 (46.1%)
2018	687	681	375 (54.6%)	378 (55.5%)	312 (45.4%)	303 (44.5%)
2019	672	704	391 (58.2%)	387 (55.0%)	281 (41.8%)	317 (45.0%)

3. 입양아동 상태

3-1. 아동의 건강상태

- 국내입양의 경우 건강이상 아동이 전체의 13.2%인데 비해 국외입양은 전체의 35.3% 정도가 건강이상 아동으로 전년에 비해 23명(17%↓) 감소
 - 입양대기아동 중 건강한 아이가 우선 국내입양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외입양은 건강이상 아동이 국내입양보다 높게 나타남
- 건강이상은 미숙아, 저체중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연령이 너무 낮아 장애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입양아동의 0.1%(1명)임
(단위 : 명)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2017	465	439 (94.4%)	26 (5.6%)	398	287 (72.1%)	111 (27.9%)
2018	378	355 (93.9%)	23 (6.1%)	303	168 (55.5%)	135 (44.5%)
2019	387	336 (86.8%)	51 (13.2%)	317	205 (64.7%)	112 (35.3%)

3-2. 아동의 성별 및 연령

- 국내입양 여아의 비중이 67.7%로 월등히 높으며, 연령별로는 3월~1세미만 아동이 69.8%(‘18년 65.1%, 4.7%P↑)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국외입양은 상대적으로 남아 비율(73.5%)이 높고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 (0.6%P↑), 연령별로는 1~3세미만이 전체의 95.6% 차지
(단위 : 명)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성별		연령				계	성별		연령		
		남	여	3월 미만	3월~1세미만	1~3세 미만	3세 이상		남	여	1세 미만	1~3세 미만	3세 이상
2017	465	150 (32.3%)	315 (67.7%)	4 (0.9%)	281 (60.4%)	150 (32.2%)	30 (6.5%)	398	302 (75.9%)	96 (24.1%)	-	382 (96.0%)	16 (4.0%)
2018	378	110 (29.1%)	268 (70.9%)	3 (0.8%)	246 (65.1%)	88 (23.3%)	41 (10.8%)	303	221 (72.9%)	82 (27.1%)	-	294 (97.0%)	9 (3.0%)
2019	387	125 (32.3%)	262 (67.7%)	6 (1.6%)	270 (69.8%)	83 (21.4%)	28 (7.2%)	317	233 (73.5%)	84 (26.5%)	-	303 (95.6%)	14 (4.4%)

4. 입양아동 발생 유형

-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내입양의 경우 유기아동(13.2%)과 가족해체등(1.8%) 順

(단위 : 명)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미혼모아동	유기아동	가족해체등	계	미혼모아동	기아등	가족해체
2017	465	417 (89.7%)	35 (7.5%)	13 (2.8%)	398	397 (99.7%)	-	1 (0.3%)
2018	378	315 (83.3%)	47 (12.5%)	16 (4.2%)	303	302 (99.7%)	1 (0.3%)	-
2019	387	329 (85.0%)	51 (13.2%)	7 (1.8%)	317	317 (100%)	-	-

5.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 미국이 73.2%로 가장 많았고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18년 62.0%, 11.2%P↑), 영국의 경우 1명으로 '90년(1명) 이후 재진입

(단위 : 명)

년도	계	미 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2017	398	274 (68.8%)	25 (6.3%)	28 (7.0%)	20 (5.0%)	24 (6.0%)	5 (1.3%)	6 (1.5%)	5 (1.3%)	11 (2.8%)	-	-
2018	303	188 (62.0%)	28 (9.2%)	22 (7.3%)	19 (6.3%)	14 (4.6%)	5 (1.7%)	7 (2.3%)	7 (2.3%)	12 (4.0%)	-	1 (0.3%)
2019	317	232 (73.2%)	13 (4.1%)	23 (7.3%)	12 (3.8%)	10 (3.2%)	3 (0.9%)	3 (0.9%)	5 (1.6%)	15 (4.7%)	1 (0.3%)	-

6. 입양부모 소득별 친자 유무(국내입양)

- 친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하는 비율이 59.9%로 더 많았고,
 - 입양가구의 소득수준은 월 714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4인가구 기준) 이상인 가구가 절반 수준

(단위 : 명, %)

경제상황	친자유무								
	2017			2018			2019		
	계	유	무	계	유	무	계	유	무
계	465	160 (34.4)	305 (65.6)	378	149 (39.4)	229 (60.6)	387	155 (40.1)	232 (59.9)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 50% 이하	14 (3.0)	9	5	8 (2.1)	7	1	5 (1.3)	2	3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140 (30.1)	71	69	131 (34.7)	73	58	128 (33.1)	63	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70 (15.1)	26	44	51 (13.5)	15	36	52 (13.4)	21	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초과	241 (51.8)	54	187	188 (49.7)	54	134	202 (52.2)	69	133

<참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¹⁾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기준 중위소득 50% ²⁾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참고> 전년도('18.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2,427,525	4,100,554	5,369,602	5,950,915	6,310,473